

고규홍의 '나무생각'



21세기의 에리쉬크톤과 다윈의 경고

장맛비가 시작됐다. 폭염경보도 발령됐다. 제주 지역에 올라온 장마전선은 봄을 통째로 빼앗긴 이 땅을 축축이 적실 것이다. 불쑥 찾아온 여름이다. 어느 해보다 열흘쯤 이르게 왔다는 장마가 유난히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건 계절의 흐름을 느낄 여유도 없이 황망히 지나쳐 보낸 봄 탓이라. 뜨거운 햇살과 축축한 비를 받기는 건 무엇보다 나무들이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 나무에도 푸른 잎이 무성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 펼쳐진 낯선 풍경이 눈길을 끈다. 단지를 둘러싸고 우뚝 솟아 있던 모든 나무들이 줄기만 전봇대처럼 남고 나뭇가지는 모조리 사라졌다. 나뭇가지가 없는 나무에서 잎이 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이치다. 단지 둘레에서 도시의 매연을 빨아들이며 험하게 살아온 은행나무가 그렇고, 10층 높이까지 웅웅하게 솟아올랐던 메타세쿼이아가 모두 그 모양이 됐다. 이 아파트 단지의 벚꽃 터널은 이 지역 사람들이 즐겨 찾은 만큼 아름다운 '이 도시의 명소' 가운데 하나였다. 20년쯤 된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

람들은 나무가 베란다 창문에 그늘을 드리워 답답했고, 나무에 서식하는 벌레들이 아파트 창문을 넘나들어 성가셨다. 은행나무가 가을에 씨앗을 흠뻑리며 풍기는 고약한 냄새도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가지치기를 결행했다. 모든 가지를 잘라내 창충간에 행해진 나무 주변 풍경을 주민들은 얼마나 만족해했는지 궁금하다. 겨울 지나고 단지 바깥의 모든 나무들이 초록 잎으로 싱그러운 그늘을 지을 때 짙빛 살풍경만 남은 아파트단지 풍경을 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는 거인 에리쉬크톤이 나온다. 에리쉬크톤은 마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대한 떡갈나무를 베어 냈다. 그러자 나무에 깃들어 살던 요정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요정들은 신에게 에리쉬크톤의 만행을 알렸고, 신은 에리쉬크톤에게 배고픔의 형벌을 내렸다. 먹어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에리쉬크톤은 딱치는 대로 먹어 치우다 급기야 자신의 몸통이까지 뜯어 먹고 입술만 남긴 채 사라졌다.

도시의 아파트에서 나뭇가지를 처참하게 베어 내자 나뭇가지에 집을 지었던 까치가 사라졌고, 나뭇잎을 먹고 몸피를 불리던 작은 곤충들도 사라졌다. 곤충이 사라지자 곤충을 먹으며 살던 작은 새들도 날아오지 않았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도 따라서 살 수 없었다. 어쩌면 보금자리를 잃은 어떤 미생물은 남아 있는 마지막 생명의 의지를 일으켜, 주변의 다른 생명체에게 옮겨 가느라 안간힘을 다하고 있을지 모른다.

잔혹한 톱질이 아름다운 나무를 할퀴고 지난 뒤에 맞이한 봄에 우리를 찾아온 건 봄을 송두리째 앗아간 바이러스였다. 잎사귀 하나 없는 나무로 둘러싸인 사람의 마음에 찾아온 악몽 같은 봄이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사람이 승전보를 올린 건 두 차례(천연두와 우역바이러스)밖에 없다. 어떤 바이러스도 이겨내지 못했다. 공생이라는 생명의 진리를 가리키는 지표다. 바이러스와의 공생이 과연 가능하거나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일 뿐, 결코 모든 자연을 합부로 해치울 권리를 가진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연은 결코 사람의 지배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 바이러스가 사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인지를 살펴볼 일이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자연의 근본 원리를 벗어난다. 자연은 어느 한 종의 생명만을 위하지 않는다. 38억 년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엄연한 진리다.

찰스 다윈은 "자연은 생명의 메커니즘 전체에 작용한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교배하지만 자연은 자신이 돌보는 생명의 이익을 위해 교배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우리 결의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안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다붙여 느끼는 것, 나무를 둘러싼 생명의 메커니즘 전체를 살펴보는 일이말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일임에 틀림없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교정 치료와 치아 관리



이경민 전남대치과병원 교정과 교수

서 제거해야 하므로 레진의 부착 강도가 너무 강하면 제거 시 치아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정용 레진의 강도는 충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레진의 강도보다는 낮다. 딱딱한 음식이나 끈적끈적한 음식들 예를 들면, 땅콩 강정이나 옛, 카라멜, 껌, 사탕과 같은 음식을 무심코 씹게 되면 치아에 부착된 브라켓이 탈락될 수 있다. 어느 한 치아에 서만 브라켓이 탈락하게 되면 그 치아만 정상적으로 치아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교정 치료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브라켓이 떨어지면 곧바로 치과에서 다시 부착해야 한다.

간혹 구강 내에 탈락된 브라켓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 후 정기 내원 때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 나머지 치아들만 이동을 하고, 브라켓이 탈락된 치아는 이동을 못하거나 옆으로 쓰러지게 된다. 이 경우 교정 치료를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야 해서 치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치아에 브라켓을 부착하고 교정 치료가 시작되면 환자는 바로 불편함을 느끼

게 된다. 예전과는 다르게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지고 브라켓과 철사가 모든 치아에 부착되어 있어 식사 시에 음식물이 자꾸 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치아 관리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위티픽 또는 구강 세정기라고 하는 구강 용품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구강 세정기는 작고 긴 노즐을 통해 물줄기를 입안으로 뿜어내어 철사나 브라켓 사이 사이에 끼여 있는 음식물 덩어리를 제거해 준다. 구강 세정기는 교정 장치 주변에 끼어 있는 음식물 제거와 잇몸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칫솔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 본격적인 칫솔질 전 큰 음식물 덩어리를 제거한다는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교정 장치 주변에 음식물이 끼어 있으면 보기도 좋지 않고

입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정 치료를 받는 1-2년 동안 양치질 습관이 갖추어지면 교정 치료가 끝난 후에도 더 습관이 유지되어 건강한 치아를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구강 세정기는 교정 치료가 끝난 후에도 한 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교정 치료가 끝난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잇몸에 염증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더 심해지지 않고 호전되게 하려면 잇몸을 적절히 자극해 주는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정 치료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꼴로 치과를 찾아가 1~2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정기적인 진료 약속을 잘 지켜야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간혹 개인 사정으로 몇 달씩 내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가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른바 교정 치료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긴 치료 기간 동안 치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원 약속 또한 잘 지켜서 교정 치료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건강하고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광주관광재단 발족에 거는 기대



김성호 동신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해마다 커가는 추세에 적극 대응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 타격을 받고 있다. 다만 일상화된 관광이 오래 중단될 수는 없고 향후 요요 현상이나 보상 효과에 의해 관광산업은 원래의 위치를 찾아갈 것이다. 곧 발족할 광주관광재단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시민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국제 관광도시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관련 법률에 의거, 2018년 5월 1일 설립되었다. 최근의 관광기관협의회 미팅에 주요 멤버로 참여했지만 발족된 지는 불과 2년에 불과하다. 서울관광재단의 비전은 '서울 시민과 함께 관광품질 제고'이고, 추진 전략은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명소화이다. 이에 더해 관광 생태계 지원 강화나 국내외 관광 거버넌스 확대, 마이스(MICE)산업 육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 집권 체제로 일국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는 현실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된 서울의 관광 정책은 느긋

한 편이다. 관광이 아니라도 많은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그렇게 절박한 것도 아니다. 국내외 관광객들도 절로 몰려들고 찾아오므로 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27일 창립총회가 열린 전남관광재단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전남관광재단이 내세우는 목표는 관광 산업을 전남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도정 정책에 발맞춰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정책 종합 지원체계 및 지역 관광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남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관광재단도 전남관광재단과 연계하여 상승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관광재단의 목표는 열악한 광주 관광의 활로를 열어 나가며 광주와 배후지인 호남의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관광 관련 부서는 간섭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임 경영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파견을 지양

하고 기존의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조직을 흡수할 때 단순한 승계보다는 일하는 조직으로 일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신규 조직을 확대할 때는 관광 마케팅 마인드를 가진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서울관광재단이 제시하는 경영자상은 세계를 포용하는 전문가(Global Specialist)로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국제 동향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인재, 변화를 즐기는 혁신가(Smart Risk-Taker)로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동적인 인재,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전략가(Strategic Designer)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시각과 분석능력을 가진 인재, 소통하는 협력가(Open Collaborator)로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인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광주관광재단의 경영인으로서의 낙후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사명감을 가진 창의적인 지역 관광 전문가로서 지역 관광 발전에 매진하는 인재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社說

재정 분권 정책이 지역 격차 되레 키워서야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분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되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등 낙후 지역보다는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에 정부 예산이 집중 지원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의 재정 공시와 정보 공개 요청 자료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의 국고 보조금은 1조 50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부는 수도권에 4조 7369억 원, 영남권 3조 379억 원, 충청권에는 1조 1687억 원을 더 지원했다. 지방세와 지방 교부세까지 포함시킬 경우 수도권과 영남권의 증가액은 각각 9조 3523억 원, 6조 3201억 원으로 3조 3647억 원에 그친 호남권을 압도했다.

'광주 데이터센터' AI 산업 활성화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 1월 '데이터 3법'을 개정하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그제 1000억 원을 들여 광산구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AI(인공 지능) 집적 단지 내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말에 착공해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세계적으로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88 페타 플롭스 성능의 슈퍼 컴퓨터가 설치될 계획이다. 10의 15제곱을 뜻하는 '페타'와 컴퓨터 성능단위인 '플롭스'를 합성한 '페타 플롭스'는 1초당 1000조 번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발맞춰 광주시는 올해 들어서만 14개 AI 관련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인공 지능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그제는 AI 기업인 (주)에이모와 '광주 인공 지능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 구

축' 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인공 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도심 내에 AI 기업을 위한 전용 입주센터를 임대 또는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공 지능 산업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면 광주에 진출한 AI 기업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가공·제공하는 관련 비즈니스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 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에 주석을 붙이는 작업에는 사람 손이 필요해 고용 창출이 뒤따를

무 등鼓

20년 전, 절대로 다시 하지 못할 '귀한'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일제강점기부터 운영했던 경전선 광주 도심 구간이 2000년 8월 10일자로 폐지됐는데, 바로 전날 마지막 열차인 부산발 광주행 1555호 통일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승객은 주로 순천·보성·별교·화산 등지에서 거둔 농수산물을 이고 지고 남광주시 장에 와서 팔았던 아나네들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탈 수 없게 된 기차에서 그들들은 남광주역과의 인연을 구구절절 털어놓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70년간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근대 건축물은 지역 내논의 과정보다 없이 허물어 사라지고 대신 공중화장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남광주역이나 경전선과 깊은 인연이 있는 백운고가가 지난 6월 4일부터 해체되기 시작했다. 1989년 11월 개통하며 광주의 자동차 시대 개막을 알린 이 백운고가는 지나치게 굴곡이 심해 그동안 사고가 잦았고, 사람의 접근을 막는 고가로 인해 백운광장 주변이 쇠락하는 원인이

백운고가

됐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고가가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의 선진 도시는 진작 그런 추세로 가고 있었다. 서울만 해도 고가는 사람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지향하는 가운데 반드시 철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서울은 1968년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선 아현고가를 2014년에 철거하는 등 1980년 이후 지금까지 20여 개를 없앴다.

광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다. 삼국 시대부터 호남의 주요 도시로 존재감을 보여왔고, 읍성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돼 대도시로 성장했다. 가나긴 시간 동안 공간이 형성되면서 곳곳에 과거와 마주하며, 그 안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이러한 옛 공간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을 멋대로 철거해 버리고, 오히려 진작 사라져야 할 것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그 처리를 미루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백운고가 철거를 계기로, 광주라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듬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었으면 한다.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주국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